

경제

노사상생이 지역경제 살린다

상생의 노사문화

협력문화 정착해 함께 성장하고 결실 공유로 지역경제 탄탄하게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과거 투쟁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노사관계가 실리와 상생으로 변화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운동장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광주권역 158개 사업장 가운데 7.1%에 비해 17.2%포인트 높은 수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성립률도 지난해 58.3%에서 올해 62.1%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노사 간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되면서 입법 타결 시점이 빨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엔 지루한 임금 줄다리기를 거친 후 연말에 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노사상생 시대엔 대립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사가 서로 인정했다는 풀이이다.

실제 GS칼텍스 여수공장은 6개월 이상 소요되던 명분 중단의 소모적 교섭 관행을 버리고 노사 공동 임단협 실무팀을 구성해 교섭기간을 3주로 단축했다.



지난해 10월 광주 상무공원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노사화합 희망드림 콘서트' 부대행사 중 아름다운 가게에서 기아차 직원과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올해 초 워크아웃 중 파업과 직장 폐쇄라는 초유의 노사 갈등을 빚었던 금호타이어도 지난 5월 우여곡절 끝에 노사가 '2011년 노사 특별합의서'에 합의, 회생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도 지난 4월 노사가 상호이해와 존중을 다짐하는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자제도 동참했다. 광주 광산구는 자치구 중 처음으로 노사상생을

위한 실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젠 기아자동차 차례다. 기아차는 지난해와 올해 초 광주 지역의 산업평화를 이끈 선봉장이었다.

올해도 기아차는 2년 연속 무파업 임협 타결을 기대했다. 노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인상안에 잠정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 내부의 계파 간 다툼이 발목을 잡았다. 노조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

표에서 임금합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이후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과 특근 거부 등 파업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 집행부 선거와 겹치면서 역대 최장·최대·최다 파업이라는 불명예 진기록을 세웠던 지난 2009년과 상황이 비슷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협상이 장기화되면 노사 양측 모두 생산 차질, 임금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또 다시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가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반면 조속히 마무리되면 지난해 이룬 상생의 노사문화를 탄탄히 다지고, 빈사상태의 지역경제에도 희망이 될 것이다.

기아차는 지난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이 발전하고 경영실적이 좋아지면 혜택은 근로자들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경험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과거 투쟁 위주의 강성노조가 남긴 것은 노사 불신과 갈등이었다"면서 "빈사상태의 지역경제를 살피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기자 jwpark@kwangju.co.kr



'갤럭시S2 화이트' 출시

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15일 삼성전자가 '갤럭시S2 화이트'를 국내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전작인 갤럭시S 화이트 색상과는 달리 전면과 후면 모두 화이트 색상을 적용해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농수산물 '알뜰장보기 물가예보'

농식품부 주 1회 제공 품목별 동향정보 답아

금주부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알뜰장보기 물가예보'가 매주 1회 제공된다고 농림

수산식품부가 15일 밝혔다.

'물가예보'에 담기는 내용은 ▲ 품목별 가격 움직임과 동향정보 ▲ 상승 또는 하락이 예상되는 품목의 등락 원인과 비싼 품목의 값이 내리는 시기, 대체품목의 가격, 가격안정 정책추진 등의 정보 ▲

절기별 구매포인트, 제철 농산물 싸게 사는 법 등이다. 물가예보는 물가정보망(www.kamis.co.kr)에 주 1회 게시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이번주 물가예보에는 태풍 '무이파' 전후 농수산물 소비자가격 변동과 과일류 피해상황 분석 내용, 추석 과일값 대책, 배추 가격전망 등이 실린다.

"기업 상속세 독일의 10배·일본의 4.5배"

대한상의 주장

국내 기업자산 상속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높아 상속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업상속을 가정한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 시 국내 상속세 부담이 독일의 10배, 일본의 4.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피상속인이 10년간 영위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을 포함해 50억원 가치의 개인기업과 현금 자산 20억원 등 총 170억원을 배우자 및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것을 가정하고 주요국의 상속세액을 계

산했다. 계산 결과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100억원에 대한 국내 상속세 부담은 25억2000만원으로 독일 2억5000만원의 10배, 일본 5억6000만원의 4.5배에 달했다.

총 상속재산 170억원의 상속세액 또한 한국 42억9000만원, 독일 5억5000만원, 일본 12억7000만원, 영국 5억9000만원으로 우리나라가 주요국 보다 3.4~7.8배나 높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의 상속시 상속재산의 40%

를 과세구역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기업 승계 후 10년간 사업을 자산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10년간 고용의 120% 유지 의무가 추가된다. 대한상의는 이에 기업승계 전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업상속공제율을 기업승계 이후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100%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장수기업 탄생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속세율 인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상조금 10회 이상 납입 후 해약하면 환급 받는다

공정위 9월부터 시행

상조 해약 최종환급금이 내달 1일부터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해약시 상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기존 16회차(120회 납입 상품 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상조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경우 전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

다. 이에 따라 직장인 K씨가 A 상조회사에 360만원짜리 상조상품(5만원*72회)에 가입해 29회 납입(145만원) 후 해제, 환급을 요구하면 지금은 48%(69만6000원) 정도 환급받지만 내달 1일부터는 73.9%(107만1250원) 이상 환급받게 된다.

공정위는 내달 1일 이후 이 같은 고시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상조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해약 환급 관련 분쟁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2008년의 경우 피해구제 234건 중에서 해약환급관련 피해구제가 159건으로 68%였으나 2010년에 피해구제 604건 중 해약환급관련 피해구제가 489건, 80.9%로 늘었다.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Business Opening/Success)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scriptions for categories like '진주인력대기소', '정원일식', '기담철학원', '엔젤인마트', '매산건축철거전문', '옛날세상', '엄마분식', '빛고을익스프레스', '민음고기나라', '금산컨설팅개발', '호남특수무늬목', '(주)금산건설개발', '119미꾸&오리', '하프&치킨', '무등산업', '사계절당구장', '포레스토커피숍', '건강리듬다이어트', '하안그릇백화점', '백호유통', '유성환경기술', '박기네들개량팔리랑족색생면칼국수', '성인소파', 'Rinnai(린나이무등상사)', '진영소주방', and '화석시대고기뷔페'.